

홍콩·베트남·인니가 효자 증권사 해외점포 실적 ‘好好’

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48.5% 급증
현지법인, 영업제한으로 적자
해외현지법인 자기자본 23% 증가

지난해 증권사의 해외점포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홍콩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수료 수익 등이 증가한 덕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18억2400만 달러(한화 약 2125억6000만원)로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난해 말 기준 14개 증권사가 14개국에 진출해 67개의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지법인과 사무소가 각각 52개, 15개다.

지역별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53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9개 ▲영국 4개 ▲브라질 1개 등이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 8개 ▲인도네시아 8개 ▲베트남 8개 ▲싱가포르 6개 ▲일본 3개 등이다.

실적은 국가별로 홍콩이 9억6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억8400만 달러, 2억

〈국가별 증권회사 해외점포 현황(‘19년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아시아								미국	기타 주 ²⁾	합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기타 주 ¹⁾				
현지법인	39	5	8	8	6	6	-	6	9	4	52
사무소	14	9	-	-	2	-	3	-	-	1	15
점포수 (A)	53	14	8	8	8	6	3	6	9	5	67(B)
비율 (A/B)	79%	21%	12%	12%	12%	9%	4%	9%	13%	7%	100%

주¹⁾ 미얀마(2개), 태국(1개), 캄보디아(1개), 몽골(1개), 인도(1개) /금감원
주²⁾ 영국(4개), 브라질(1개)

22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전체 당기순이익의 83.7%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 해외현지법인은 1600만 달러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위탁·인수 수수료수익과 이자수익이 늘었다”며 “중국 진출 현지법인은 중국 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라 상무국에 일반자문회사로 등록해 영업이 제한되면서 적자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현지법인 자산총계는 584억7000만 달러(한화 67조7000억원)로 전년 말 대비 18.1% 늘었다. 해외진출 증권회사 자산총계의 18.8% 수준이다.

해외현지법인 자기자본은 58억2000만 달러(한화 6조7000억원)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해외진출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15.9%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이 늘면서 실적은 지난 20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권사별로 진출지역과 영업형태 등이 달라 리스크 요인수준이 상이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 금융시장의 가변성으로 인해 향후 영업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해외투자 관련 잠재적 리스크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왼쪽부터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KB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사옥 전경. /각사

손보 웃고 생보는 울상... 하나·농협생명 ‘선방’

금융지주 보험사 1분기 손익

손보, 장기보험 손해율 소폭 개선
생보, 자산운용수익 하락에 손익 ↓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의 1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손해보험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소폭 개선되면서 선방했지만 생명보험사는 저금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손익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푸르덴셜생명, 더케이손보 등 보험사 인수를 통해 영역 확대에 나서면서 소속 보험사의 실적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KB·하나·농협 등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의 실적이 엇갈렸다.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의 실적은 개선된 반면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KB생명 등 생보사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하나생명, NH농협생명은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내년 7월 통합 출범을 앞둔 신한금융지주보험사인 신한생명하고 오렌지라

이프의 1분기 순이익은 모두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신한생명 순이익은 397억원으로 전년 동기(539억원) 대비 26.3% 줄었다. 같은 기간 오렌지라이프도 803억원에서 595억원으로 26.0% 감소했다.

신한생명은 보장성 상품판매 확대에 따른 실적증가로 신계약비차손익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오렌지라이프는 저금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손익이 감소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빅컷’(큰 폭의 금리인하)을 단행한 바 있다.

KB금융지주 보험사들의 실적도 엇갈렸다. KB손보의 1분기 순이익은 772억원으로 전년 동기(753억원) 대비 2.5%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반면 KB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2% 감소했다. 사업비차손익 부진과 저금리 여파에 따른 자산운용 악화 등의 영향이다. 하지만 향후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생명 인수로 KB생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주 기자 hj89@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연기

금융위, 금융사 인력 준비 부족 등
마지막 2개 단계 이행시기 1년 연기

정부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시점을 1년간 연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회사들의 준비인력이 부족한 데다 해외 협업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비청산 장외 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시기를 1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위원회(IOSCO)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은 개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연기

거래잔액	기존 적용시기	연기 후 적용시기
3조€ 이상	2016년 9월 1일	既往적용
3조€ 미만 ~ 2.25조€ 이상	2017년 9월 1일	既往적용
2.25조€ 미만 ~ 1.5조€ 이상	2018년 9월 1일	既往적용
1.5조€ 미만 ~ 0.75조€ 이상	2019년 9월 1일	既往적용
7500억€ 미만 ~ 5000억€ 이상	2020년 9월 1일*	2021년 9월 1일
5000억€ 미만 ~ 800억€ 이상	2021년 9월 1일*	2022년 9월 1일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정 → 법률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2020년 3월 6일) /자료/ 금융위원회

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간 연기한 상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손실발생에 대비해 담보성격의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이 이상인

금융회사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시기를 오는 9월에서 2021년 9월로 늦춘다. 해당 금융회사는 은행 23개, 증권 8개, 보험 8개로 총 39곳이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도입시기도 오는 2022년 9월까지 미룬다. 해당 금융회사는 은행 5개, 증권 7개, 보험 6개, 자산운용 1개 등 19 곳이다. /나유리 기자

KDB산업銀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 본격화

KDB산업은행은 5일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준비단’을 발족하고 기금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은 성주영 수석부행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부 등 기금 설립·운영, 재원조달 및 금융지원, 회계, 정보기술(IT) 등 인프라 구축 관련 13개 부서장으로 구성돼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

의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재원으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은행은 채권 발행부터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업무전반을 맡게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금 출범으로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기간산업에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 및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카드 “아이폰에서도 터치결제 하세요”

신한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이제 아이폰에서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터치결제가 가능해진다.

신한카드의 신한 퓨처스랩 5기인 ‘단술플러스’와 공동 개발한 고음파 기술을 활용해 아이폰을 대상으로 신한페이판(PayFAN) 터치결제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6월 출시한 신한페이판 터치결제는 오프라인 전 가맹



점에서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터치하는 것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현재 누적 거래건수 800만건, 누적 취급액 2000억원을 넘어섰다.

아이폰 등도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 /김희주 기자

라이프파크, 치료센터서 다시 연수원으로

한화생명, 경기도 첫 생활치료센터

한화생명 라이프파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경기도 1호 생활치료센터로써 일정을 마무리하고 본래의 연수원 역할로 돌아간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29일 한화생명 라이프파크가 경기도 최초의 생활치료

센터로서의 운영을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감소하며 코로나19가 안정 상태에 들어선 데 따른 것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상황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요청하기에 앞서 연수원 시설인



한화생명 라이프 파크 전경. /한화생명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치료센터로 재공하기로 결정했다. /김희주 기자